



지리산낙농농협,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나서

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옥)은 11일, 깨끗하고 축사 냄새 없는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농장 및 방취림 조성 사업에 나섰다.

김재옥 조합장과 임직원 10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축산농가 주변의 축산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조성,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 구현을 위해 추진됐다.

김재옥 조합장은 “축산농가 주변에 방취림 조성사업이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축산농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공사장 불티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1,600도에서 3,000도로 최대 11M까지 흩어져 단열재 등에 들어가면 화재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빌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기를 받고 사전 안전조치후 작업 실시 △소화기, 소화수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모든 화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및 흡연 금지 △작업 후 일정 시간 비산불티 및 연기 발생 확인 등이다. 건설 현장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학동 점검

정읍경찰서(서장 김학곤)는 4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와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학동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와 함께 학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미신고, 안전교육 미이수, 동승자 여부 및 차량 구조 등을 점검했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들을 상대로 교통법 규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학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푸른 숲 캠페인

무주군, 적상산 일원서 아생화 심고 환경정화 활동 펼쳐

무주군은 11일 적상산 일원에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푸른 숲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대표 박용수)가 주관한 이날 캠페인은 2024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이강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그리고 덕유산국립공원과 양수발전소,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적상산성과 호국사비 주변에 기린초 등 아생화를 심고 쓰레기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나무의 역할과 숲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서재영 부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지구는 환경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푸른 숲 캠페인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숲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자리, 우리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무주한국역사문화연구소는 지역문화유산의 활용과 보존, 교육에 힘쓰고 있는



단체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올해 국·도·군비 3억 8천여만 원을 확보, 예절교육과 음식 및 전통놀이 체험, 어린이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안국사 소장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기관별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지게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 모양지구대(지구대장 오세광)에서는 최근 고창 관내에서 지게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력을 다 하고 있다.

지개치는 항상 우리 작업 현장 근처에 있어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지게차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순간 안전에 소홀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내 150여 대의 지게차 소유업체 및 운전자 등에게 경찰서장 서한문 전달 및 안전수칙 교양 등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오세광 모양지구대장은 “지게차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및 운전자 등을 찾아가고, 순찰 시 운행 중인 지게차를 만나면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여 지게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맞춤돌봄서비스 사회참여 자조모임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6개 읍·면(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부남면, 적상면, 안성면)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4월 1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사회참여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삶의 힘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아 존중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향상을 위해 자조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주군 6개 읍면에서 14개 팀으로 구성하여 피부관리·네일아트·웨어·손가락 낫타·리탄공예·손뜨개·삼풀비·립밤 만들기·건강운동·요리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노년의 독거어르신들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하여 미음의 힘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로 활동이 가능하나 지역 문화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젊은 날을 추억하여 무기력한 삶에서 탈피하고 생활의 힘력을 증진시키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미음의 삶과 힐링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고 밝혔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홍교 관장은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들이 이번 자조모임을 통하여 일상으로부터의 삶을 얻고 내면의 힐링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교월동 복지기동대, 사랑의 집수리 봉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1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복지기동대(대장 최창민)가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위해 집안 내 가구 이동 및 적재된 쓰레기 배출하는 등 대청소활동을 실시했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상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덕면, 어르신 공경 '효 잔치' 개최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한 효 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공덕면에 따르면 이번 효 잔치는 공덕면 지역발전협의회(협의회장 박영환)·공덕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유봉영)·공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완우) 공동주관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다채로운 공연과 먹을거리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여해 행사를 축하하는 1부 개막식과 함께 공덕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고, 2부 경로효 잔치는 참여자 오찬과 박화영, 금수니, 고은아, 안영화 등 초대 기수 축하공연과 어르신이 참여하는 현장 노래자랑으로 이뤄져 회합의 시간이 펼쳐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